

# “딥페이크 등 위협요인 탐지·식별해, 선제적으로 대응”

안보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발표  
2월 ‘사이버안보 전략’ 후속 세부계획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 암호 체계 강화  
국가 핵심인프라 복원력 제고 등 선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안보실이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100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경찰 등 14개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내용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이 선정됐다.

이에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 및 공동과제(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다. 신 실장은 우선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동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 행위자에 관한 선제적·능동적 사이버 방어 활동으로 위협 역지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

을 뜻한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허위정보 대응 강화에는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 대응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존 수세적 방어 위주에서, 위협요인을 능동적으로 탐지·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큰 개념”이라며 “국정원 같은 정보수사기관이 중심이 돼서 협업 기관을 망라해 탐지·관리하다가 필요시 조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러 프로세스를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

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암호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신 실장은 이에 대해 “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공간 구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에서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재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석화업계, R&D 투자로 신사업 경쟁력 강화

중국발 공급과잉 불황 돌파 시도  
수익성 약화에도 R&D 투자 지속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석화업계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간다.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에 맞서 차별화 전략으로 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1일 학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석화 제품 핵심 재료를 가공하는 국내 NCC(나프타 분해 설비) 평균 가동률은 지난 2021년 93.1%, 2022년 81.7%에서 지난해 74%로 하락했다.

국내 석화기업들이 NCC가동률을 줄인 이유는 중국 업체들이 에틸렌 설비 증설을 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은 5174만톤으로 지난 2018년(2565톤) 대비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중국은 오는 2026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을 5601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석화 업계의 수출 중 중국 비중은 지난 2010년 48.8%에 달했지만 중국 기업의 물량 공세로 인해 2020년 42.9%로 완만하게 떨어지다 지난해

36.3%로 크게 줄었다.

LG화학은 전남 여수의 NCC2공장을 지난 2023년 4월부터 가동중단에 들어가 두달여 동안 대정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업황이 개선되지 않아 대정비 이후에도 공장 가동이 멈춘 상태다.

상반기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석화업계는 R&D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실적은 부진하나, R&D 비용을 늘려 기존 석유화학 사업을 비롯해 이차전지, 태양광 등 신사업과 친환경 기술을 확보해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 삼성·SK하이닉스, 中 상반기 매출 대폭 ↑

» 1면 ‘K-반도체·’서 계속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요 지역별 매출 현황 중 중국 매출은 32조 345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스마트폰, 가전 등도 포함하고 있으나 E U 등 시장과 달리 중국 시장은 수출 비중 90% 가량이 반도체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또한 올 상반기 중국을 대상으로 8조 606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 규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데에는 중국의 AI 모델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

자 열풍 탓이다. 올 상반기 동안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이 AI 모델 개발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최소 500억 위안(10조 원) 규모다. AI 개발을 위한 중국 내 주요 기업의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우려한 중국 기업들의 선제적 한국의 반도체 구입이 이어졌다. 중국 기업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시행될 경우 최첨단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2, HBM3, HBM3E 등 고급 반도체와 제조 장비 전부가 묶일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Only & Totally Different

## 부산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경남정보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학령인구, 평생교육, 유학생을 아우르는 미국 고등교육의 근간인 커뮤니티 칼리지와 같은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구현을 위해 가장 진화된 교육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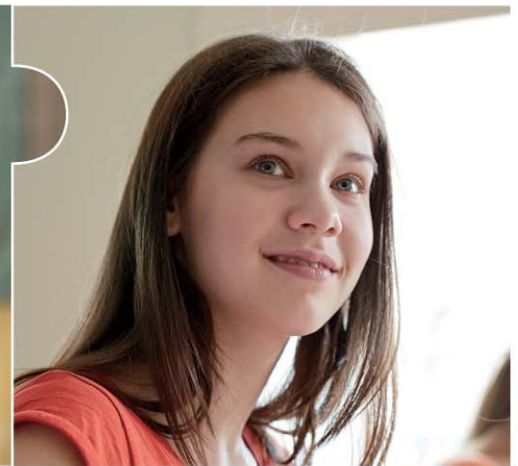
입학이 곧 취업인 대학  
자신만만 취업프로그램  
2, 3, 4학년 학위과정  
38개 학과의 맞춤형 취업교육으로  
부·을·경 최다 인원 취업



더 높은 꿈으로 이끌어주는 대학  
드림하이 편입프로그램  
전공에 따라 8개 대학에 무시험으로 편입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길을 열어드립니다.



다양한 특강, 단기강좌,  
정규과정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의 요람  
성인학습자를 위한 15개 학과(과정) 운영  
1977년 부산 최초로 개원한  
평생교육원



세계의 청년들을  
부산 경제의 동력으로 이끄는  
글로벌 대학  
'정주형 유학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유학생을 부산시민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대학과 함께하는 풍부한 해외연수!



2024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